

# 구현모 “5G, 폭발적 잠재력… B2B시장의 블루오션”

〈KT 대표〉

## ‘GTI 서밋 2020’서 기조연설

“KT, 5G로 타산업 혁신 이끌 것  
AI·빅데이터와 결합 시너지 내야”

“지금까지는 모바일 통신이 B2C의 중심이었다면, 5G의 중심은 B2B로 전환될 것이다. 5G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함께 결합해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다. KT가 5G로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1일 열린 ‘GTI 서밋 2020’에서 ‘5G 현주소와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2일 밝혔다. GTI 서밋은 GTI 주최의 행사로 매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



구현모 KT 대표. /KT

A) 주관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의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돼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MWC 바르셀로나가 전격 취소된 것에 이어 MWC 상하이도 개최가 무산되면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형태의 이벤트 ‘GSMA 쓰라이브’로 대체 진행됐다. GTI 서밋 2020도 GSMA 쓰라이브 행사의 일환으로 ‘모두를 위한 5G’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구 대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GTI 서밋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에서 5G 상용화 1년이 지난 현재 B2C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결국은 B2B 시장에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뚫었다.

구 대표는 “5G의 B2B 시장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차별화된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라며 “기업 고객은 통신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설비 투자와 인프라 고도화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5G 기반 디지털 혁신(DX)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KT가 발굴한 다양한 5G B2B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적용 사례로는 영화 촬영 현장, 의료 분야, 실감 미디어 기술 등이 꼽혔다.

구 대표는 이 같은 5G B2B 확산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짚었다. 5G 모듈이 탑재된 B2B 단말 확대, 각 산업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기존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가치 창출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유지 인프라로서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디어·데이터 소비가 급증하는 등 통신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어 통신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5G는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플랫폼이라는 시각으로 여러 사업자 및 소비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통신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세계 최초 5G를 주도해온 차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적용사례를 발굴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KT가 5G B2B 영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한진칼 BW 청약에 3자연합 참여… 지분경쟁 격화

〈신주인수권부사채〉

3000억 발행에 증거금 7.3조 몰려  
경쟁률 24.45대 1… 만기이율 3.75%  
“3자연합, 지분 늘릴 수 있는 기회”

한진칼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에 7조3000억원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SK바이오팜에 이어 시중에 풀린 대기자금이 몰린 결과다.

BW 발행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3자연합(반도건설·KCGI·조현아)도 이번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높은 경쟁률로 인해 배정 물량이 적었을 수 있지만 대규모 증거금 청약에 나섰다 지분 경쟁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3000억원 규모의 한진칼 BW 청약 최종 경쟁률은 24.45대 1에 달했다. 증거금 규모는 총 7조3341억원이다.

이번 BW는 표면이자율이 연 2%, 만기이자율은 연 3.75%다. 채권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일이며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상장 예정일은 16일이다. 만기



한진그룹. /김수지 기자

일은 3년 뒤인 2023년 7월3일이다.

한진칼과 같은 대기업이 BW 발행에 나서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한진칼 같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매자닌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매긴 한진칼 신용등급은 ‘BBB’에 해당한다. 한신평은 ‘부정적’, 한기평은 ‘하향검토’로 전망을 밝혀놓고 있어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BW는 전환사채(CB)와 함께 매자닌으로 묵인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

는 장점을 지닌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연 3.75%에 달하는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이번 BW 발행에 증거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3자연합도 BW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W 발행으로 늘어나는 지분은 최대 5.3%에 달해 매입 여부에 따라 지분율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아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BW는 분리형으로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매각할 수 있다. 신주행사가액은 8만2500원으로 전일 종가(8만6500원) 대비 4.6% 낮아 차익 실현

이 가능하다. 주가가 하락하면 행사가를 70% 낮추는 리픽싱 조항도 있어 투자 위험이 적다. 신주인수권 행사는 내달 20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한진칼의 BW 발행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진칼은 지난달 1일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방식으로 BW 30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 5월 14일 대한항공 지분 가치 유지와 대한항공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3자연합 측은 BW 발행에 대해 “발행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와 BW를 사게 되면 3자 연합 측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3자 연합이 대거 사들일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지분을 늘릴 기회가 된다”며 “현 경영진이 유리한 의사 결정을 내렸는지 추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소비자물가 상승률 0% 두달째 초저물가 지속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 동향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탈출했지만 두 달 연속 초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와 한우 등 먹거리 물가는 급등했다.

2일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작년 동월과 같았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지면 -0.01% 하락이지만, 국제노동기구(ILLO) 매뉴얼 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공식 물가이므로 제로 물가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올라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월에 다시 0%대(0.1%)로 떨어진 뒤 5월에 -0.3%로 더 내렸다. 작년 9월(-0.4%)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품목별 물가는 요동을 쳤다. 농·축·수산물(4.6%)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 포인트 끌어올렸으나, 석유류(-15.4%)와 공공서비스(-0.2%)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각각 0.68%포인트, 0.28% 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방역 전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축산물 가격이 10.5% 상승한 영향이 컸다. 반면,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 가격은 -1.4%로 떨어졌다. 서비스 중 개인서비스는 10.0%, 집세는 0.2% 각각 올랐다.

/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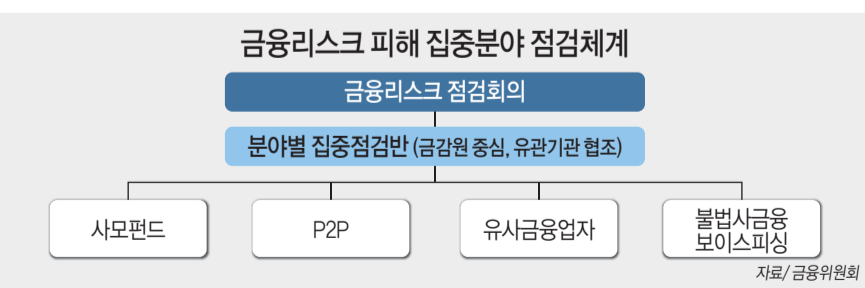
# “저금리에 금융사고 증가… 사모펀드 1만개 전수조사”

금융위·금감원, 전면점검 회의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곳을 전수 조사한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는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감독·검사방식을 뛰어넘는 점검체계를 마련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점검 대상은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

용 및 보이스피싱 등 네 가지 분야다. 금융당국은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우선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는 판매사를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집중점검반을 통한 ‘현장검사’

2가지로 진행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가 주도해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판매사는 지난 5월 기준 1만304개의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운용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은 오는 9월까지 약 2개월 간이며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 중에도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차이 발생, 기타 법령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등의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 현장검사와 연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